

석유제품, 3월 수출 전망도 먹구름

석유협회, 39.1% 감소 16억5000만달러 ... 2009년 전체로는 반토막

글로벌 경기침체에 따른 세계적인 석유 수요 감소의 여파로 효자 노릇을 해온 석유제품의 수출 전망도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.

석유협회의 수출동향 및 전망보고서에 따르면, 3월 석유제품의 수출실적은 1-2월과 마찬가지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.

3월 수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9.1%나 감소한 16억50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.

석유제품 수출액은 2009년 들어 급락했으며 수출감소율은 갈수록 더 높아져 2009년 전체 수출액이 185억 8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9.5%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정유기업들은 수출 회복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.

먼저 수출지역을 아시아 지역에서 벗어나 오세아니아, 유럽, 남미, 아프리카 등으로 판로를 개척해나갈 방침이다.

또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최종 수요처와의 직거래를 추진해 수출 수익성을 개선하며, 장기계약을 통한 고정 수출거래처를 확충할 계획이다.

한 정유기업 관계자는 “기존 거래처 이외에 판로를 확대하고, 다양한 수출방식을 동원하는 등 수출 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”이라고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3/02>